

# 얼굴인식으로 체크인 중국 알리바바의 '미래호텔'

글 김윤구 베이징 특파원



자료사진 / 미디어트 제공

줄을 서서 번거롭게 체크인할 필요가 없다. 객실에서는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룸서비스도 주문할 수 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본거지인 항저우에 세운 호텔의 모습이다.

알리바바가 곧 항저우에서 '미래호텔'인 '페이주 부커'(菲住布渴) 호텔(영문명 플라이주 호텔 Flyzoo Hotel)을 시범 운영한다.

이 호텔은 로비에 체크인 카운터가 없다. 대신 투숙객을 안내하는 것은 로봇이다. 예약한 손님은 체크인 기기로 얼굴인식을 하거나 휴대전화의 전자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체크인하면 된다.

호텔 곳곳에는 얼굴인식 장치가 설치돼 있다. 덕분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에 투숙객이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투숙객의 객실이 있는 층까지 데려다준다. 방에서 나서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대기하게 한다. 객실에서는 스마트스피커 '티몰 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실내 온도와 조명, 커튼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음식을 사키면 알리바바의 로봇이 가져다준다.

알리바바의 미래호텔은 알리클라우드, 인공지능실험실, 텐마오(天猫·T몰) 등 알리바바그룹 여러 부문이 협력한 결과다.

객실 내의 가구나 침구는 앱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 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미래호텔이 알리바바의 '신소매' 전략의 시험장이 된 셈이라고 차이징은 지적했다.

왕첸(王群) 알리바바 미래호텔 CEO는 자사의 지능화 호텔이 동급의 다른 호텔보다 직원 수 대비 효율이 1.5배라고 말했다.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후를 맞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11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 3천642만7천달러(약 412억원)에 낙찰됐다.

이 다이아몬드 진주 펜던트의 낙찰 예상가는 최고 200만달러(약 22억원)였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종 낙찰가는 예상가의 18배를 넘어섰다.

펜던트를 사들인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매업체 소더비 측은 진주가 들어있는 장신구 경매가로는 이 펜던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더비는 이날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분기인 부르봉 파르마 가문이 소유했던 보석 100점을 출품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보석 장신구 10점도 경매에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진주 펜던트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경매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펜던트 경매 때는 호가 경쟁이 10여 분간 이어졌다.

펜던트를 포함해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유했던 보석 장신구 10점 전체의 최고 낙찰 예상가는 300만달러(33억원)였지만 모두 4천300만달러(487억원)에 팔렸다.

낙찰 예상가 8만달러(9천만원)였던 다이아몬드 브로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175만달러(19억8천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출품된 보석류 100점은 모두 5천310만달러(601억원)에 팔려 소더비 경매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보석들은 딸과 손녀 등에게 전달되면서 200여 년 동안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합스부르크 공국을 다스렸던 마리아 테레시아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세 때 프랑스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했지만 프랑스 혁명의 격변 속에 1793년 37세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그의 시녀였던 캉팡은 앙투아네트가 툴리리 궁에 감금됐을 때 밤새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 등 보석을 면으로 싸서 나무 상자에 넣었다는



EPA=연합뉴스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 보석들은 브뤼셀에 있던 언니 마리 크리스틴 대공비에게 보내졌고 앙투아네트가 처형된 뒤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의 유일한 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에게 전달됐다.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는 친자식이 없었지만, 조카와 양녀 등에게 보석을 넘겨줬고 이후 이 보석들은 파르마 공국의 마지막 군주였던 로베르토 1세(1907년 사망)에게까지 전달된다.

## 마리 앙투아네트 다이아몬드 진주 펜던트 412억원에 낙찰

### 예상가 18배 가격에 팔려...낙찰자는 비공개

글 이광철 제네바 특파원



# EU 매니저 100명 중 여성은 36명꼴 “유리천장 여전히 견고”

EU보고서…보건 분야 여성 매니저 73%, 건설 분야는 8%뿐

글 김병수 브뤼셀 특파원

유럽연합(EU)에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인 매니저 100명 가운데 여성은 36명꼴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양성평등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된다. EU 산하기관으로 EU 회원국 국민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관리직 여성들'(Women in management)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노동자 가운데 48%가 여성이지만,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인 매니저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은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매니저급이 아닌 일반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51%로 남성보다 많았다. 또 매니저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에 따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감독업무가 없는 매니저의 경우 여성이 41%를 차지했으나, 감독업무를 가진 매니저급에선 여성 비율이 37%였고, 주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인 슈퍼바이저의 경우 여성 비율이 35%로 더 낮았다. 국가별 여성 매니저 비율은 리투아니아가 45%로 가장 높았고, 헝가리(43%), 불가리아·키프로스·라트비아(각 42%), 스웨덴·영국(각 39%), 슬로베니아·덴마크·에스토니아·스페인(각 38%), 아일랜드(37%)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는 여성 매니저 비율이 26%로 가장 낮았고, 체코(27%), 몰타(31%), 오스트리아(32%), 이탈리아·핀란드·프랑스·포르투갈(각 33%) 등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으며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도 높았다. 여성 매니저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73%)이었고 교육(64%), 상업 및接客업(41%), 기타 서비스(36%), 금융(34%), 공공행정(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건설 분야의 경우 여성 매니저 비율이 8%에 불과했고, 운송·제조업(각 22%), 농업(26%) 등도 낮았다.



# 伊정부, 다빈치 그림 佛루브르 박물관 대여에 ‘제동’ “서거 500주년 특별전 위해 佛에 작품 보내기로 한 전 정부 결정 재검토”

글 현윤경 로마 특파원

지난 6월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이탈리아 우선' 정책의 불통이 문화 예술 분야에도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탈리아가 소장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주요 그림 전부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대여하기로 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빈치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모나리자'를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내년 다빈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해 내년 9월에 다 빈치의 회화 걸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를 위해 다빈치의 주요 그림 다수를 소장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2017년 협

약을 맺고 특별전을 위한 회화 작품들을 공수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루치아 베르곤초니 문화차관은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전 문화부 장관이 루브르 박물관과 맺은 협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루브르에 다 빈치가 그린 그림 전부를 보냄으로써 이탈리아는 다빈치 서거 500주년이라는 대규모 문화 행사에서 소외될 것"이라며 "다 빈치는 이탈리아인이며, 프랑스는 그의 사망 장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 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519년 프랑스에서 숨졌다. 베르곤초니 차관은 "(루브르 박물관과)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박물관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이익이 뒤로 밀릴 수는 없다. 프랑스가 (다 빈치의 그림)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루브르 박물관은 내년 특별전을 위해 이탈리아로부터 다빈치의 주요 그림 전부를 대어받는 대가로, 자신들이 보유한 르네상스 시대의 걸출한 화가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그의 서거 500주년이 되는 2020년 로마의 스퀘어 데 릴리 날레 박물관에 빌려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르곤초니 문화차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라파엘로의 작품 대부분은 이미 이탈리아에 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이동이 가능한 라파엘로의 그림들만 보내주겠다고 한정했다"며 2017년 양국이 맺은 합의가 이탈리아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초고령화 일본, 성인기저귀 쓰레기 ‘골머리’

##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 10년 새 72.6% 늘어

글 김병규 도쿄 특파원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의 생산량은 2007년 45억장에서 2017년 78억장으로 10년 사이 73.3%나 증가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 개호(노인돌봄)가 필요한 사람의 수는 2015년 기준 450만명으로, 2030년에는 6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늘면서 쓰레기의 양도 급증했다. 일본중이기저귀재활용추진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의 양은 84만에서 145만t으로 72.6% 늘었다. 기저귀 쓰레기 문제는 고령자의 비중이 큰 시골에서 더 심각했다. 일부 시골 지자체의 경우 성인용 기저귀가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의 20~30%를 차지하는 곳도 있었다.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가 위협적인 것은 유아용

기저귀와 비교해 크고 무거운 데다 수분 함량이 많아 태우기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일본에서 현재 400여종의 성인용 기저귀가 판매되고 있는데, 상당수는 흡수량이 1천cc에 달한다.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한 노인 요양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90%가 기저귀"라며 "가능하면 기저귀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기만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환경당국은 '사용 후 기저귀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들에 배포해 기저귀 쓰레기 줄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기저귀 쓰레기 재활용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쓰레기 처리와 회수에 대한 지침을 담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기저귀 제조사, 재활용 회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기저귀를 연료나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돗토리(鳥取)현 호키초(伯耆町)의 경우 기저귀를 고체형 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 관련 쓰레기를 대폭 줄였다. 토탈케어시스템이라는 재활용 회사는 기저귀에서 펄프를 빼내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간 5천t의 기저귀를 재활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의 대형마트에서 처음으로 식용 곤충 판매를 시작했다. 세인스버리는 전국 250개 점포에서 '잇그럽'(The Eat Grub)사가 생산한 '구운 귀뚜라미'(roasted crickets)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통에 1.5파운드(약 2천200원)인 이 제품은 '바삭하고 훈제향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홍보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 전용 마트인 오카도(Ocado)에서 5개월 전부터 식용 곤충을 판매 중이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인스버리는 '구운 귀뚜라미'를 스낵으로 먹

거나, 타코스나 샐러드 등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고 제안했다. '잇그럽'사의 창업자인 사미 라디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명이 곤충을 즐기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서구 사람들이 곤충을 식품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귀뚜라미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 그램 당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라고 강조했다. 식용 곤충이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오카도에서 판매 중인 곤충식품에 대한 리뷰에는 "전혀 BBQ 맛 같지 않고 너무 비싸다"며 별 다섯 개 만점에 한 개를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칼로리도 낮고 맛도 좋다"면서 별 다섯 개 만점을 준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❶

# ‘한 통에 2천200원’

## 영국 대형마트서 ‘구운 곤충’ 판매

글 박대한 런던 특파원



EPA=연합뉴스